

Weon Rhee

Education

2021, Graduate, Bachelor of woodworking & furniture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KOR
2023, Completion, Master of furniture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KOR

Award

2021,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competition craft design prize, Seoul, KOR
2023, Salone del mobile, Salone Satellite Award winner of special mention, Milan, ITA
2023, Marunuma Art Park Artist Residence selected participant, Saitama, JPN
2024, Loewe Craft Prize Finalist, Madrid, ESP

Group Exhibition

2021, Craft Trend Fair, Coex, Seoul, KOR
2023, Salone Satellite, Fiera Milano, Milan, ITA
2023, London Design Festival, Mint Gallery, London, GBA
2024, Loewe Craft Prize Exhibition, Palais de Tokyo, Paris, FRA
2024, London Craft Week, Mint Gallery, London, GBA
2024, Frieze Seoul Eulji night, Gonggan Hyeong, KOR
2024, Paris Design Week, boon room gallery, Paris, FRA

イ・ジョンウォン

学歴

2021年 弘益大学木工家具デザイン専攻卒業。(ソウル・韓国)
2023年 弘益大学家具デザイン修士課程修了。(ソウル・韓国)

受賞歴

2021年 「清州国際クラフトコンペティション」クラフトデザイン賞(ソウル・韓国)
2023年 「Salone del mobile」サローネサテライト賞特別賞受賞(ミラノ・イタリア)
2024年 ロエベクラフト賞ファイナリスト(マドリッド・スペイン)

グループ展

2021年 「クラフトトレンドフェア」コエックス(ソウル・韓国)
2023年 「サローネサテライト」フィエラミラノ(ミラノ・イタリア)
2023年 「ロンドンデザインフェスティバル」ミントギャラリー、(ロンドン・イギリス)
2024年 「ロエベクラフト賞展」パレ・ド・トーキョー(パリ・フランス)
2024年 「ロンドンクラフトウィーク」ミントギャラリー(ロンドン・イギリス)
2024年 「フリーズソウルウルジナイト」(ゴンガンヒョン・韓国)
2024年 「パリデザインウィーク」ブーンルーム(パリ・フランス)

丸沼芸術の森は1985年、須崎勝茂氏(株式会社丸沼倉庫代表取締役)により設立され、以来40名以上のアーティストを輩出してきました。30年以上の支援活動の結果、村上隆氏を始め、多くのアーティストが現在、国内外で活躍しています。

丸沼芸術の森は制作の場には留まらず、アートと社会を結ぶ架け橋となっています。今後は、国際文化交流を通じ、よりグローバルな活躍を各作家が目指せるようにレジデンスや展覧会などを積極的に行い、活動の幅をさらに広げていきます。

Marunuma Art Park was established by Mr.Suzaki in 1985,and we hosted over 40 artists since then. Many artists,including Takashi Murakami,are active both at home and abroad as a result of our continued support to artists for over 30 years.

Marunuma Art Park is not only a space for the conception of art but also acts as a bridge connecting art society.We aim to further expand by broadening the range of our activities and proactively executing residency programs and exhibition plans.We hope that our artists can become more involved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globally more active.

イ・ジョンウォン個展/俺たちは遠くから来る

主催：丸沼芸術の森・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後援：駐日韓国文化院

 丸沼芸術の森
MARUNUMA ART PARK

丸沼芸術の森

Marunuma Art Park

〒351-0001 埼玉県朝霞市上内間木493-1

TEL:048-456-2553

FAX:048-456-0003

<http://marunuma-artpark.co.jp>

Marunuma Art Park

2024 Artist-in-residence Program No.3

Weon Rhee Solo Exhibition

2024年11月15日(金) - 17日(日) 10:00~17:00



俺たちは遠くから来る

「俺たちは遠くからくる」というタイトルの展示を考えているという。なんだか宇宙からの侵略者のようだな、と思い聞き返すと、全くそのとおりだと李は答えた。

今回で18人目となる丸沼芸術の森レジデンスアーティストである李鐘元（イ・ジョンウォン）は、大学で木工家具について学び、独自の視点でその制作プロセスと構造を捉え直そうとしている。主にパラレル・ストランド・ランバー（P S L）という細かい木片に圧力をかけた集成材を用い、塊から削り出す手法による造形は、家具というより彫刻の存在感に近い。また、それらのインスピレーションは、キノコやムール貝などの寄生生物や塊根植物などの不可解な構造を持つものから起想されており、これは田舎で育った幼年期の体験と紐づけられている。昆虫や木の葉をおもちゃ代わりに遊んでいた李は、それらが持つ細かな形状や質感に人知の及ばない異星からやってきたような混乱と美しさを見いだすと同時に、とても原始的で身体的であるとも感じているという。

ADHD。日本語では、注意欠如、多動性障害とも翻訳される病名である。コロナ収束後の2022年に身体の異変に気がついた李は翌年に医療機関で検査を受け、重度の障害があると診断される。自身への不信感と共に、日常を生きてきた自分の中に突然現れた、もう一人の人格の存在を意識することになった。このことがきっかけとなり、今までの作品を検証し、その制作プロセスをしっかりと組み直し、もう一人の自分とコラボレーションを行うことでその改善を試みた。コラボレーションの基本は相互理解である。コンセプトを固めて、3DCGで図面を完成させ、木を削る。もともと自制心が効かない自分を監視するための制作スタイルができる。

日本の文化や食に興味を持ち、留学を試みていた李は、コロナの世界的なパンデミックにより、その志を断念せざるを得なかった。今回、ようやく日本での制作を行うチャンスを得たのだが、新しい環境に慣れず、まるで遠い宇宙からやってきた隕石のようであり、初めて世界に触れる原始人のようでもあるという感じがしたという。いつも使ってきた材料も手に入らず、生活環境も違うこの地で一体何ができるのであろうか考えた末に、異物である自分が朝霞の地に侵入し、感染を拡げてゆくイメージが湧いてきた。すべてが関わり、つながり、そして生き抜くことを考える。

「俺たちは遠くからくる」という本展示は、そんな李の体験からくる壮大な物語である。

東京造形大学
教授・彫刻家 大橋 博

우리들은 먼 곳으로부터 온다

‘우리들은 먼 곳으로부터 온다’라는 타이틀의 전시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인가 우주로부터의 침략자 같구나 하고 생각하며 되물어보니 그 말 대로라고 이종원은 대답했다.

이번에 17인제를 맞이하는 마루누마 예술의 숲 레지던스 아티스트 이종원은 대학에서 목공가구에 대해서 배우고 독자의 시점으로 그 제작 프로세스와 구조를 재정립하려 하고 있다.

주로 '패럴렐 스트랜드 램버(PSL)' 라고 하는 작은 나무파편에 압력을 가한 집성목을 사용하며, 덩어리에서부터 깎아내는 수법에 의한 조형은 가구라 기보다는 조각의 존재감에 가깝다.

또한 그것들의 인스피레이션은 버섯이나 홍합 등의 기생생물이나 괴근식물 등의 불가해한 구조를 가진 것들로부터 떠오르며, 이것은 시골에서 자란 유년기의 체험과도 연관성이 있다.

곤충이나 나뭇잎을 장남감 대신 가지고 놀았던 이종원은 그것들이 가진 세밀한 형상이나 질감에서 인지가 미치지 않는 다른 별에서 온 것 같은 혼란과 아름다움을 찾아냄과 동시에 아주 원시적이며 신체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ADHD’ 일본어로는 주의결여, 다동성 장애 라고도 해석되는 병명이다. 코로나가 수습된 후 2022년에 신체에 이변을 느낀 이종원은 다음해에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중증의 장애가 있다고 진단받는다. 자신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일상을 살아온 자신의 안에서 돌연 나타난 또 한 명의 인격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의 작품을 검증하고 그 제작 프로세스를 철저하게 재구축하여, 또다른 한 명의 자신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것으로 그것의 개선을 시도했다.

일본의 문화와 음식에 흥미를 가지고 유학을 준비하던 이종원은 코로나에 의한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그 꿈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드디어 일본에서의 제작 기회를 얻었는데, 새로운 환경에 좀처럼 익숙해지지 못하고 마치 먼 우주에서 날라온 운석과 같으며, 처음으로 세계를 마주한 원시인과도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항상 사용해 왔던 재료도 구하기 힘들고 생활 환경도 다른 이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끝에 이물(異物)인 자신이 아사카의 땅에 침입해 감염을 확산시켜가는 이미지가 샘솟았다.

모든 것이 변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살아남는 것을 생각한다. ‘우리들은 먼 곳으로부터 온다’라는 이번 전시는 그런 이종원의 체험에서 오는 장대한 이야기이다.

동경조형대학교 교수

조각가 오하시 히로시